국외논문정보 / 산업보건분야의 국외 학술잡지에 게재된 논문제목과 초록을 소개합니다. 당 편집실에서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학술지의 제목과 초록을 정보화하여 필요로 하는 곳에 매월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행된 논문의 저자, 제목, 잡지명

Injuries to carpenters.
Waller JA, Payne SR, Skelly JM.
J Occup Med 1989 ; 31 (8) : 687-92

Relationship of subjective tolerance of respirator loads to physiologic effects and psychophysical load sensitivity. Harber P, Shimozaki S, Barrett T, Loisides P. *J Occup Med* 1989 ; 31 (8) : 681-6

Locations of fatal work injuries in the United States : 1980 to 1985. Trent RB. *J Occup Med* 1989 ; 31 (8) : 674-6

A simple field test for assessing salt balance in heat-stressed miners. Cross RB, Galton-Fenzi B, Jordan L. *J Occup Med* 1989 ; 31 (8) : 668-73

An epidemiologic investigation of forced expiratory volume at 1 second and respiratory symptoms among employees of a toluene diisocyanate production plant. Olsen GW, Shellenberger R, Bodner KM, Flores GH, Emmitte JA, Bond GG, Saunders JH. *J Occup Med* 1989 ; 31 (8) : 664-7

Predictors of stress-related illness in city bus drivers. Bartone PT. *J Occup Med* 1989 ; 31 (8) : 657-63

Factors affecting workers' compensation claims activity. Lundeen C. *J Occup Med* 1989 ; 31 (8) : 653-6

Occupational exposure to zeranol, an animal growth promoter. Aw TC, Smith AB, Stephenson RL, Glueck CJ. *Br J Ind Med* 1989 ; 46 (5) : 341-6

Job demands, job decision latitude, job support, and social network factors as predictors of mortality in a Swedish pulp and paper company. Astrand NE, Hanson BS, Isacsson SO. *Br J Ind Med* 1989 ; 46 (5) : 334-40

주요논문초록

『Toluene diisocyanate 제조공장 근로자에 있어서 1초간 최대 호기량과 호흡기 증상에 대한 역학적 연구』

저자 : Olsen GW, Shellenberger R, Bodner KM, Flores GH, Emmitte JA, Bond GG, Saunders JH.

출처 : Journal of Occupational Medicine 1989 ; 31(8) : 664-667.

TDI(toluene diisocyanate)공장에서 TDI에 폭로된 57명의 근로자들과 TDI나 기타 호흡기에 유해한 물질에 폭로되지 않은 89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폐기능검사를 실시하고 그것을 현재 및 과거의 TDI 폭로 수준과 비교하였다. TDI 공장에 근무한 평균 근무연수는 4.1년(표준 편차 2.8)이었다. 일상적인 산업위생학적 평가에서 그들의 폭로 농도는 TWA(시간 가중 평균치) 0.005ppm미만이었고 STEL(단기간 허용농도) 0.02ppm미만으로 나타났다. 자격이 있는 산업위생사가 TDI에 폭로될 위험정도에 따라 부서와 작업을 비폭로, 약간 폭로, 중등도 폭로, 심한 폭로의 4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설문지를 통하여 호흡기 증상과 흡연에 대한 유병정도를 파악하였다. 후향성 회귀분석을 통하여 총 흡연량(cumulative pack-years)과 하부 호흡기 증상이 표준화된 1초간 최대 호기량(FEV_1)에 대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아르헨티나의 고지대에서 일하는 광부 중 코카와 알콜에 대한 역학적 연구』

저자 : Schinder EO, Ruder AM.

출처 :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1989 ; 15(5) : 579-587.

1976-1977년에 아르헨티나의 고지대에서 일하는 107명의 광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응답자 중 매일 코카(남미 원산의 관목으로 잎에서 코카인을 추출하여 약재와 마약으로 쓰임, 역자주)의 잎을 씹는 근로자가 70명(65%)이었다. 15명(14%)은 간혹 코카를 사용하였고 매주 음주하는 사람이 36명(34명)이었으며 14명(14%)은 간혹 마셨다. 매주 음주하는 사람중 35명은 역시 매일 코카잎을 씹는 사람들이었다. 습관적으로 상용하는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이나 총 근무연수는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였다. 코카를 매일 사용하는 광부들은 중등도나 경한 작업의 근로자들보다 작업이 힘들고 심한 근로자들에게서 유의하게 많았고(비차비 4.24), 상시 지상 근무를 하거나 보통 지상 근무가 많은 광부보다 상시 지하작업을 하는 광부에게서 역시 많았으며(비차비 7.25), 다른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 비하여 착암기 작업자와 광석운반차를 미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서 많았고(비차비 6.56), 메스티조와 인디언들이 백인에 비하여 많았다(비차비 3.33). 역시 매주 음주를 하는 광부들도 심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았고(비차비 6.49), 상시 지하작업을 하는 사람에게 많았으며(비차비 5.57), 착암기 작업자와 광석운반차를 미는 근로자에게서 많았다(비차비 3.67).

각각의 경우에서 이러한 변수들의 가능한 혼란효과를 교정한 후 습관성과의 연관이 있었던 것은 작업장소, 작업의 경중도와 작업내용이었다.